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www.vnet.go.kr

군 인 친 구
1666-9279
전 국 1 0 개 센 터 대 표 번 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5 December Vol.238

리:스펙 제대군인

2025 December Vol.238

Re play

막힘을 뚫다,
인생의 길을 열다

Re connect

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30년의 진화

Re new

리:스펙 제대군인
20년의 여정,
존경의 기록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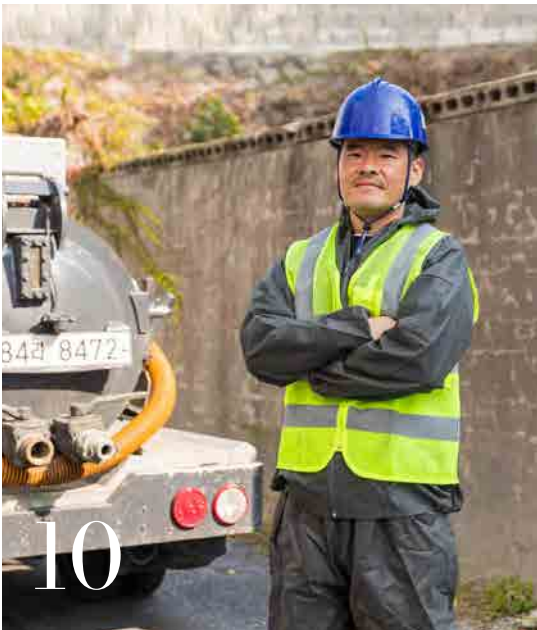
김우중
예비역 육군 대위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December Vol.238



12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가능성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하늘 아래 모든 건물을 열정과 도전으로 관리하다
천하종합관리㈜
- 10 **인사이드 스토리**
막힘을 뚫다, 인생의 길을 열다
김우중 예비역 육군 대위
- 14 **위대한 전환**
다음 진출지는 사회
정의장 예비역 육군 대위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2026년 상반기 취업 전략
선택의 시대, 채용의 기준이 달라진다
- 20 **스페셜 리스트**
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30년의 진화
- 24 **금빛 상담소**
연말의 허전함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법: 3단계 실전 가이드
정지하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13도 창익군 결성
- 28 **미디어 로그**
카메라 뒤의 세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PD & 메이크업 아티스트 & 영화 프로듀서 & 카메라 감독

Re new

- 32 **전문가 칼럼**
생성형 AI 이후의 시대, 2026년을 읽다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낙조의 수평선에서 평화를 기억하다
전남 목포
- 38 **끝맺음**
리:스펙 제대군인
20년의 여정, 존경의 기록 마침표
- 42 **독자 광장**
한 해를 닫고, 내일을 연다
연말연시 읽으면 좋은 책 3선

통권 238호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권오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능성은 []이다

“불가능은 단지 작은 가능성의 시작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막다른 곳에 멈춰 선 적이 있습니다.
더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출발선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가능성은 조용히 숨을 틔니다.

가능성은 화려한 기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 미약한 시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의 반복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의 불가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겨울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12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늦은 듯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건물을
열정과 도전으로 관리하다

천하종합관리(주)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아파트부터 빌라, 오피스텔, 상가까지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건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누군가 묵묵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시설관리부터 입주민 응대, 법률 자문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회사, 천하종합관리(주)가 있다.

계단 청소부터 시작한 열정의 역사

천하종합관리(주)가 출범한 2012년은 건물 관리가 단순 경비·미화에서 건물의 법정 점검과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까지 확장되던 전환기였다. 조신백 대표이사는 그해 6월 공동대표 2인과 함께 회사를 열었다. 당시 광고 신도시에는 빌라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만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을 뛰었고,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 빌라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며 신뢰를 쌓아갔다.

‘천하(天下)’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포부. 그 일을 해내는 원동력은 열정이었다. 조신백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자 회사 이름의 뜻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가치였다.

초기에는 작은 빌라 몇 곳을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시설을 미리 점검하며 문제를 예방하는 성실한 운영이 입소문을 타 관리 의뢰가 빠르게 증가했다. 건물마다 구조와 이용 방식이 다른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은 천하종합관리(주)만의 관리 철학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건물 관리의 모든 것, 토털 관리 솔루션

천하종합관리(주)가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건물의 시설관리부터 각종 세무·자금 관리 자문, 입주민 법정 관리 서비스까지 건물 운영관리 전반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토털 건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건물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물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건물의 시설관리와 각종 법령자문도 진행한다.

건물관리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이를 각 현장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미화, 보안, 주차, 에너지 관리, 엘리베이터, 소방, 전기, 통신, 건축물 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해 각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미래의 건물관리는 점점 대형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세분화되고 있기에 천하종합관리(주)는 건물의 시설물 경과와 안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노후까지 관리하여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관리 대상의 확장과 함께 정교해진 운영 방식

초기 빌라 관리에서 출발한 회사는 현재 전국 약 200곳의 건물을 관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경기 남부·북부를 중심으로 충남, 대전, 전라지역으로 확장했으며, 경북지사를 운영해 대구·경북지역, 부산 경남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관리 대상이 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오피스, 공동주택 등으로 확장되면서 운영 방식도 더욱 세밀해졌다. 사람 흐름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 인력을 재배치하고, 설비 부하가 높은 시간에는 운전 패턴을 조정하는 등 건물의 '일상'에 맞춘 운영 방식이 구축되었다.

또한 건물의 용도와 구조, 이용 패턴에 따라 에너지 낭비 지점과 유지비 증가 요인을 분석해 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ISO9001, 서비스품질우수기업(SQ), MAIN-BIZ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한 점은 이러한 운영 품질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맞춤형 운영 방식은 평균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질 만큼 높은 신뢰도로 연결되었다.

기술과 사람, 신뢰로 그리는 밝은 미래

천하종합관리(주)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미래 건물 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위험요인 인지 시스템, 모바일 기반 점검, 에너지 데이터 분석 등 기술 기반 운영을 확장하는 한편, 관리비 납부 앱 개발과 자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통해 관리 효율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계약서 컨설팅, 입주민 분쟁 조정, 부동산·분양 정보 제공 등 법률·행정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입주민과 건물주 모두를 지원하는 종합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신백 대표는 힘줘 말한다. “건물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천하종합관리(주)는 월간·연간 포상제도, 현장 우수자 인센티브, 법인 차량·기숙사·식사 지원 등 직원 복지를 강화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건물주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일, 사람의 역할이자 천하종합관리(주)가 13년간 쌓아온 신뢰의 근간이다.

계단 청소에서 시작된 작은 열정은 오늘 전국 200여 곳을 책임지는 신뢰로 성장했다. 천하종합관리(주)의 다음 장 역시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관리의 깊이 속에서 계속 써질 것이다.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은 책임감으로 회사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동료들입니다”

현재 천하종합관리(주)에는 약 3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이 중 제대군인은 20~25명 정도입니다. 저 역시 ROTC 학군장교로 군 생활을 한 제대군인이라 군에서 익힌 조직 운영과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은 지휘 경험이 많아 리더십이 뛰어나고, 민원 대응에서도 강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자연스럽게 제대군인 채용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재인증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하종합관리(주)는 창립 초기부터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건물 관리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춘 건물 관리 솔루션을 마련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동시에 미래 산업 변화에도 발맞춰 제대군인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근무 안정성과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관리기업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조신백
대표이사

“군에서 익힌 기강과 기술, 건물 관리 현장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1984년 입대해 부소대장으로 시작해 행정보급관과 주임원사로 근무하며 전기·소방·보일러·조경 등 다양한 시설 업무를 맡았습니다. 군에서 익힌 장비 운용과 관리 경험 덕분에 전역 후 건물 관리 분야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소방·전기·가스·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학원·이론 교육을 병행해 전기산업기사와 가스기능사도 취득했습니다. 2019년 11월 천하종합관리(주)에 입사한 뒤 현재 수원시의 지하 3층, 지상 6층 80실 규모 상가 건물의 시설 점검과 미화·경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쌓은 시설 관리 경험은 지금 업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다져온 책임감과 기강은 현장에서 신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분들에게는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전역 전부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자격증을 집중적으로 취득했고, 지금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에도 도전해 시설 관리 업무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김형석
관리소장

“군에서 다진 책임감과 규율, 건물 관리 업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교로 임관해 28년간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비상계획관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군에서 시설과 장비 운영을 직접 챙긴 경험이 많아 전역 후 자연스럽게 시설 관리 분야를 고려하게 됐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과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상계획 분야 경험이 시설 관리 업무와 연결된다는 조언을 받으며 준비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직무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천하종합관리(주)에 입사한 뒤 현재 화성의 8층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란 전기·소방·시설 점검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군에서 익힌 책임감과 조직 관리 경험은 업무에 그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군 생활에서 형성된 규율과 사명감은 현장 대응과 고객 신뢰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이라면 원하는 분야를 일찍 정해 준비하길 권합니다. 자격증과 교육은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저 역시 필요한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여 왔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건물 관리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태석
관리소장

막힘을 뚫다, 인생의 길을 열다

군의 분석력으로 길을 찾고,
책임감으로 삶을 바꾼
기술 창업가

김우종
예비역 육군 대위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군 시절 그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내놓는 장교였다. 그 습관은 전역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2억 원의 빚, 무너진 계획, 막막한 현실. 그러나 그는 좌절 대신 분석을 택했다. 2013년 육군 대위로 전역한 후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한 하수구 막힘 해결업체 ‘봉사자컴퍼니’. 지금 그는 연매출 3억 원을 올리는 기술창업가이자 유튜브 ‘하수구중대장’의 운영자로, 군에서 배운 분석력과 책임감을 삶의 무기로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책임감으로 버틴 시간, 그리고 첫 도전

김우종 예비역 대위의 전역은 준비된 퇴장이 아니었다. 결혼 2년 차, 첫째 아이 출산 직후 유학을 꿈꿨던 계획은 무너졌고,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빚이 남았다. 군복을 벗자마자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생계였다. 그는 개인화생 절차를 밟으며 “다 시 훈련하듯 시작하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첫 일터는 건설현장이었다. 월급 120만 원, 안전모를 쓴 채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포크레인을 배우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점심시간엔 포크레인 기사 곁에서 조작법을 익혔고, 퇴근 후엔 현장 서류를 정리하며 경리 업무까지 익혔다. 그의 진심은 현장을 움직였다. 6개월 만에 현장 대리로 승진했고, 관리·공무·장비운용까지 직접 맡는 다역 인력이 되었다.

그 시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또 다른 군 생활이었다. 지시가 없으면 스스로 임무를 만들었고, 평가가 없어도 매일 결과를 기록했다. 그는 “군대는 근육보다 습관을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던 그는 인내심과 근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운동 대신 공부에 집중하며 모의고사 점수를 200점에서 320점으로 끌어올렸고, 결국 원광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에서는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그때의 ‘잡초 근성’이 훗날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막힘을 뚫는 기술, 삶을 바꾸는 길

포크레인 임대회사로 자리를 옮긴 그는 기사로 정식 취업했다. 그러나 안정된 수입 뒤에는 ‘이 길이 내 평생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따라왔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탐색했고,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하수관 보수 작업에 주목했다. 남들이 꺼리는 영역이지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수구 막힘을 해결하는 기술이라면, 분명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200만 원으로 장비를 마련해 2014년 ‘하수구 막힘 해결업’을 시작했다. 개그맨 김준호가 “개그맨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그는 “서비스업도 결국 봉사”라 생각하며 회사 이름을 ‘봉사자컴퍼니’로 정했다. 실제로 군 시절 부대원들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지역에 이발 봉사를 자주 나가던 경험도 이 이름에 영향을 주었다. 첫해에는 가정집 변기, 싱크대, 배수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밤늦은 호출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루 열 곳 이 넘는 현장을 돌며 직접 고객을 만났다. 언제나 현장을 점검표로 기록했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무엇보다 창업 이후 성장의 배경에는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자세’가 있었다. 장비 점검부터 고객 응대,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했다. 책임감이 신뢰로 이어졌고, 비용 절감 효과는 고객의 만족으로 돌아왔다. 입소문은 또 다른 고객으로 이어졌다.

이후 내시경 카메라와 고압세척기를 도입하면서 사업은 전환점을 맞았다. 하수관을 굴착하지 않고도 진단과 보수가 가능한 ‘비굴착 보수 기술’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누구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한 그는 공사비 절감과 빠른 복구로 신뢰를 얻었다. 창업 5년 차에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했고, 채널A·연합뉴스·TV·TJB 방송에 청년창업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현재는 1명의 직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간 함께했던 직원들 중에는 기술을 배워 독립해 창업한 이들도 많다. 그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자기 홍보를 강조했다. “지식은 나누고, 기술은 기록해야 오래갑니다.”

군에서 배운 시스템, 사업의 무기가 되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공식’은 단순하다. 군에서 배운 계획·실행·피드백의 3단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원인 진단, 현장 분석, 시공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고 작업 후에는 점검표와 사진 보고서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군의 보고 체계를 사업에 이식한 셈이죠. 그 덕분에 관공서나 기업 의뢰도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봉사자컴퍼니의 일과표는 작전명령서처럼 짜여 있다. 하루 업무는 시간대별로 구분되고, 장비 점검은 의무화되어 있다. 새 직원 교육은 훈련처럼 진행된다. 그는 군 시절의 구조를 사

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천한다. 이런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폭우로 배수관이 역류하던 어느 날, 그는 긴급 출동팀을 꾸려 도심 한복판 침수 피해를 막았다. 그 경험은 ‘기술보다 대응이 먼저’라는 교훈으로 남았다. 대기업과 관급 공사에도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대에서 전술을 배웠다면, 지금은 물길의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마케팅 철학 또한 군의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했다. 그는 블로그 상위 1% 파워블로거에서 출발해 현재는 유튜브 채널 ‘하수구중대장’(구독자 2만 명)을 운영한다. 현장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직한 기록이 가장 강력한 홍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수구를 보여주는 유튜브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제 또 다른 교실이 됐죠.”

함께 나누는 기술, 그리고 후배들에게

창업 11년 차,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이제 목표는 혼자 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술 생태계’다. 그는 하수구 기술인들을 모아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과 숙련된 전문가를 연결해 일거리와 기술을 함께 나누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 그는 지하 우수관에 쌓이는 석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준설 차량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비는 같아도 경험의 깊이는 다릅니다. 다른 업체가 못 하는 막힘을 우리가 해결할 때,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제자가 있다. 기술을 전수받아 스스로 창업한 후배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들과 협력하며 그는 또 다른 사명감을 느낀다. “제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군에서 배운 리더십이 결국 이렇게 사람을 연결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돌아보며 그는 말한다. “그 시기가 제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술 풀렸다면 몰랐을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 그는 가족과 함께, 여전히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후배 제대군인들에게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

“모두가 대기업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배운 책임감과 체계는 어디서든 통합니다. 군대는 대기업 시스템과 같아요. 그것을 사회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일에서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장교의 어투’였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조직에서 일해 본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요. 부대 밖은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김우종 예비역 육군 대위의 인생 법칙

- 1. 솔직해지자.**
거짓말은 언젠가 복리의 악재로 돌아온다.
- 2. 나를 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블로그·유튜브는 최고의 무기다.
- 3. 마케팅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배움이 곧 생존이다.
- 4. 가족의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이다.**
함께 버텨준 가족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다음 전출지는 사회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우수상

정의장

예비역 육군 대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에 전역하여 현재 3년 차 사회인이 된 예비역 대위 정의장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공지를 확인하고, 제 이야기가 전역을 준비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학군사관 54기 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전공은 회계학이었으나 장기복무를 희망하여 전투병과로 지원하여 파주와 인제에서 각각 군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군 생활에 대한 염원이 강하다 보니 임관 전 희망하는 근무지역으로 최전방 접경지역을 신청했을 정도로 꼭 장기복무에 선발되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각종 여단 및 사단 주특기경연대회와 GP 및 GOP 파견도 마다하지 않고 준비한 결과, 선봉포대 선발과 사격지휘 수상 등의 이력과 더불어

주변분들 도움이 어우러져 감사하게도 1차에 장기복무 선발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평생직장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가 공무원이 됐다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기복무 선발이 됐던 날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태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며 흘리셨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평생직장을 가지게 됐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상의 문제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서른의 나이, 군에서 한창 자격증을 따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6년의 공든 탑들이 전부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1차에 선발됐던 장기복무, 연합

사에서 근무하고자 포부를 품고 매일 새벽마다 영어공부하며 취득했던 어학예비자격,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 자며 받아낸 OAC 교육평정 上등급, 20대의 절반을 바쳐 쌓아온 군 스펙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공든 탑이 아무 의미 없는 신기루가 됐다는 생각에 눈물이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역하고 난 뒤,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말 그대로 '무스펙' 그 자체였습니다. 전공은 회계학인데, 직업군인을 생각하고 입관한 터라 준비한 전공자격증도 없고, 대학교 학부시절 3, 4학년 때는 방학마다 군사훈련을 받느라 인턴십 또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서른에 전역하게 되어 신입사원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경력에 나이 많은 신입사원으로서의 취업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엊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은 항상 연이어 일어나듯이, 전역한 뒤 본가에 돌아오니 심각한 재정 상태로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명의로 사채가 5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무리하며 받은 사채가 한 달에 이자만 160만 원이 지출되어 원금 한

번 건드리지 못하고 3~4년을 고통받고 계신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빚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버지는 알콜 중독, 어머니는 알콜 의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주를 그 자리에서 안주 없이 3~4병을 물 마시듯 마신 뒤 기절하듯이 다음 날로 도망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도 나이는 들어가고, 약 봉투는 점점 늘어 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제가 받은 퇴직금과 공제회납입금 전 재산 5천만 원을 전부 갚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사채를 갚아드린 뒤 눈물을 흘치시며 고맙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여러모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가정은 살릴 수 있었지만, 이후 말 그대로 무일푼에 무자격증, 무스펙으로 사회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돈만 있다면 자격증 준비를 하든, 학원에 다니든 뭐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을까, 다른 부모님들은 못 해줘서 안달인데 나는 내가 돈을 드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닥쳤을까, 그저 창문 없는 고시원조차 월세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 막막한 벽 앞에 놓인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빛을 갇아드리고 동시에 가정에 드리웠던 알콜 중독 이 눈 씻은 듯이 해결됐고, 다시 술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알콜 치료 상담을 통해 가정을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도 무일푼, 무스펙으로 사회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니 아들을 봐서라도 함께 다시 일어서 보자고 마음을 함께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일푼, 무스펙이라도 저는 국가를 위해 20대의 절반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다했던 간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가정을 빛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의 제가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은 사회에서 주어진 역량으로 나의 삶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책임을 다해 살면 된다는 목표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알아봤던 것이 소자본 창업, 홈케어 시장에서의 창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청소, 방충

망 시공, 하수구 작업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바로 돈이 되지만 쉽사리 하기에는 꺼려지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몸이 고되고, 블랙칼라라는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의 취업자가 적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작하기 전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젊을 때 그런 먼지 마시는 직업을 해야겠느냐, 그 직업을 하려면 성격이 얼마나 싹싹해야 하는데 너 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근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시작하기도 전인데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군에서 지휘관을 했고, 프라이드가 강한 직책을 맡아왔는데,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부끄럽고 긴장했습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을 고객으로 만나면 어떡하지?”, “군에서 지휘관으로 있던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먼지 마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등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군대에서도 주어진 역할이 어떤 것이든 책임

을 다했듯, 사회에서도 똑같이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내 상황과 여건만 달라졌을 뿐, 내 삶의 발전을 위해 임무수행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충망 시공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겐 군 생활을 통해 습득된 인내심이 있고, 체력과 지휘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니즈를 파악하고 장병들의 필요에 민감하려 노력했듯이, 고객에게 어떡하면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등 임무를 분석하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를 통해 방충망 시공을 하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창업 첫 달에 매출 약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정말 고됐지만 관측장교로 임무 수행할 당시 쉬지 않고 산을 타던 때에 비하면 방충망 시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전문가로 찾아주는 고객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를 무엇보다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지 또한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인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뒤 화성시 동탄까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동탄 2호점을 론칭함과 동시에 방충망 창업교육 사업까지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상황이 난처하고, 돈은 없으나 당장의 일거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한 방충망 시공 창업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희망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창업교육이름을 ‘희망교육사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돼서 블라인드 창업교육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제게는 군에서 배웠던 L&T, 교수법, 육성 및 실병 지휘 역량이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역량, 그 역량은 20대의 절반을 봉사한 군에서만 길러낼 수 있었던, 익혀낼 수 있었던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창업교육은 지금까지 140명 가까이 배출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1억 8천만

원의 매출과 1억 3천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노력에 비하면 사회에서의 노력은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한 느낌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하루하루 전쟁을 대비하며 준비하던 군인에게 사회는 그저 전쟁에서 이긴 전쟁터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군 시절이 20대 청춘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추억임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도전과 발전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면 가끔 유튜브를 통해 힘들게 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영상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사회를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장병분들이 계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군에서 자연히 길러진 책임의식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 상황이 하나의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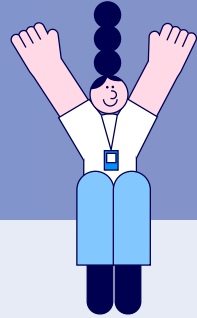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취업 전략



선택의 시대,



채용의 기준이 달라진다

공채가 사라지고, 역량이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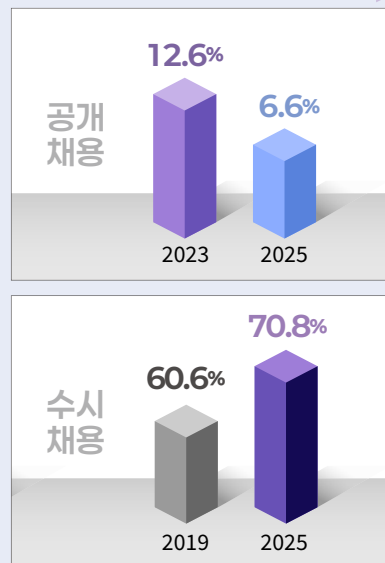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가 70.8%로 가장 높고, '정기공채와 병행' 22.6%, '정기공채만 실시'는 6.6%에 불과하다. 2023년과 비교해도 '수시채용만'은 67.4%에서 70.8%로 증가했다. 즉, 정기 일괄채용은 점차 사라지고,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상시채용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 기업들은 스펙보다 직무 경험과 문제 해결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시하는 '직무역량 평가제(Work Capability-based Hiring)'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 37조 6,157억 원(전년 대비 6.4% 증가) 가운데 직업능력개발·디지털 전환 대응 훈련 등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융복합 직무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제 채용시장의 기준은 '학력'에서 '능력'으로, '스펙'에서 '성과'로 이동하고 있다.

달라지는 채용 키워드

변화 포인트	설명	실제 흐름
공채 축소	상·하반기 일괄채용에서 상시·프로젝트형 채용으로 전환	SK·LG·롯데·현대 등 주요 그룹 이미 전면 수시채용 체계 도입
역량 중심	학력·스펙보다 실무 수행능력, 문제 해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블라인드·과제형·AI 역량검사 등 확대
융합 직무 확대	직무 간 경계가 사라지고 복합역량 요구	예: 데이터 분석+마케팅, 엔지니어링+AI 운영
디지털 전환 대응	전 산업군에서 IT 활용 역량 필수	정부, 2026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계획 추진

공채 vs 수시채용 비중 변화



<출처: 신규 채용 실태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26년 상반기 채용시장은 과거의 '정기 공채'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시채용·직무 중심 선발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 인력을 일괄적으로 선발하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사람을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채용한다. 기술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겹친 지금, 채용시장은 속도보다 '맞춤형 역량'을 요구하는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6년, 구직자가 준비해야 할 5가지 전략

빠르게 변하는 채용시장 속에서 구직자는 '타이밍'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아래 5가지는 전직·이직·첫 취업을 준비하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핵심 대응법이다.

1. 직무를 중심으로 나를 정의하라

이력서 첫 줄에 '전공'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하라. 나의 경험을 직무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필수다.

2. 성과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프로젝트 실적, 수치, 개선 결과를 시각화하라. "무엇을 했다"보다 "무엇을 바꿨다"로 기록하라.

3. 융합 역량을 키워라

AI·데이터·디지털 툴은 이제 비전공자에게도 기본기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만큼, 복합 기술을 익혀라.

4. 수시채용 대비 '상시 준비 체제'로 전환하라

공고가 뜨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 상시 오픈 포지션, 네트워킹, 기업형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5. 정부·공공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창업 지원' 등은 실무 역량 강화의 지름길이다.

지금 바로 실천할 취업 준비 루틴

취업 준비는 대규모 시험이 아니라 '생활 루틴'이다. 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갱신'하는 습관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 루틴을 하루·한 주 단위로 실행해 보자.

매일

주요 채용 플랫폼(잡코리아·사람인·워크넷 등)에서 '수시채용', '오픈 포지션' 알림 설정하기

매주

희망 직무의 최신 공고 5개를 분석해 요구되는 역량·기술·키워드 기록하기

매월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성과 항목을 수치화하기

분기별

온라인 직무 교육(K-디지털, 내일배움카드, 기업 연계 훈련 등) 1개 이상 수강하기

연 1회

자신의 커리어맵을 점검해 '어디로 이동 중인지'를 시각화하기

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30년의 진화

1997년부터 2025년까지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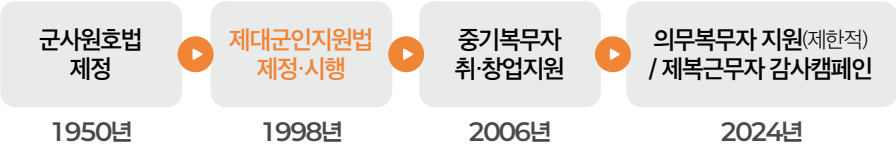
전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8년,
국가는 제대군인을 단순한 복무를 마친 이가 아닌
사회 발전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여정은 '지원'에서 '활용'으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제대군인 복지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주요
정책 변화

제대군인 지원법령 발전 경과



정책 대상의 점진적 확대



*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예우대상으로 확대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경과



법의 탄생,
'국가가 함께한다'는
첫 약속

1990년대 초반까지 전역 군인의 사회복귀는 대부분 개인의 몫이었다. 장기복무자에 대한 일부 취업 알선과 대부 지원이 존재했지만, 체계적 제도는 없었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2호, 1997. 12. 31. 제정 1998. 7. 1. 시행)이다.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제대군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국가가 전역 이후까지 책임진다'는 첫 명시적 약속이었다.

법의 핵심은 세 가지 축이었다.

- ① 취업·창업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채용 가산점, 창업 자금 융자
- ② 생활 안정 지원: 대부·의료·교육·주택 지원
- ③ 조정 기구 설치: 국가·지자체·군이 함께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구성



전국으로 확산된
지원 인프라

2000년대는 제도의 정착기였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었고, 중기복무자(5~10년)에 대한 교육·취업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2004년 서울에 개소한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7년 부산, 대전에 이어 2008년 대구, 광주로 확대해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직업 훈련, 사회적응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대군인지원정책을 현장형 서비스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북부, 경기 남부, 강원, 인천, 경남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현장 지원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00

2010년대의 정책 키워드는 '맞춤형'이었다. 단순한 취업 알선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무경력과 희망 직무를 매칭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민간자격과 군 기술 간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특히 군 경력의 민간 경력 인정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대군인의 복무이력을 '사회경력'으로 전환하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주택대부, 의료비 감면,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 지원 제도도 크게 강화되었다.

지원의 폭도 '장기복무자 중심'에서 중·단기복무자까지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체를 포괄하는 복지체계로 발전했다.

2010



맞춤형
전직지원의
시대



인적 자원으로서의
제대군인

2020년대 들어 제대군인 정책은 '보호'의 영역을 넘어 '활용'의 단계로 진화했다. 군 경력을 공공기관의 호봉과 임금 산정에 반영하려는 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관을 인증·우대하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은 월 81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8만 원으로 인상되며, 실질적 생활안정 기반이 강화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전직 연계 맞춤형 과정' 등 민간 협력형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연계망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AI·로봇·안전·보안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전문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2020

제대군인 지원 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30년, 제도는 한층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특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을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으로 의무 반영하고,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관을 우대하며, 법률상담과 노무자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과 고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군 경력의 사회 인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관별 적용 편차가 크고 중·단기 복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경력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직업 외의 사회적응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방권의 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은 분명한 진전을 이뤄냈다. 제대군인 복지는 더 이상 선의의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지원의 철학도 '시혜'에서 '동행'으로 바뀌었다. 앞으로의 30년, 그 동행의 길은 '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의 삶을 보다 주체적인 성장의 무대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

2025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정,
시행된 변화와
다가올 변화

Q

올해가 끝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허전해요. 분명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뭘 했지?’ 하는 허무함이 커요. 내년엔 제대로 살고 싶어 계획을 세워보려 해도, 어차피 작심삼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2026년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새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연말의 허전함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법:

3단계 실천 가이드

글 정지하

A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한 해가 끝나갈 때마다 “나는 뭘 한 걸까?”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고, 계획을 세워도 또 흐지부지될까 두려운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더 나은 2026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해 계획을 가장 현실적으로 세우는 3단계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1단계. 2025 TOP3 NEWS 뽑기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려면, 먼저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돌아보면 특별한 일이 없던 것 같아도, 차분히 정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순간과 의미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가장 쉽고 재미있게 1년을 정리해 볼까요?

준비물: A4 용지, 기록(핸드폰 사진첩 • 캘린더 • 다이어리 • 일기 등), 펜과 형광펜

Step 1. A4용지를 4등분하기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4칸을 만들어요. 각 칸 위에 굵은 글씨로 [일], [사회], [가족], [나]라고 적어 주세요. 이 네 가지는 삶을 구성하는 기본 영역이에요.

Step 2. 올해의 TOP 3 적기 각 영역마다 기억에 남는 일, 성취, 경험을 3개씩 적어보세요. 핸드폰 사진첩이나 캘린더, 일기를 같이 보면서 적으면 3개가 아니라 10개 넘게 적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며 생각보다 풍성했던 1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Step 3. 그 일의 ‘의미’를 적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찾아냈다면, 그 옆에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일 영역에 ‘승진했다’라고 적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적을 수 있어요. ‘내 노력을 인정받아 기뻐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이 생겼다’, ‘좋은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실’에 ‘마음의 해석’이 붙는 순간, 그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한 부분이 됩니다.

2026년 계획

무엇을 + 언제

1. 매일 3km 이상 러닝
- 저녁 식사 후, 매일
2. 감사한 일 떠올리기
- 자기 전 누워서, 매일

PLUS

올해를 정리하며 느낀
행복감을 더 키우고 싶다면,
그 순간들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건네보세요.
배우자나 연인에게, 동료에게
“올해를 돌아보니 이런 점이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이지요.

일

- 1.부서 핵심 프로젝트 투입
- 실무자로 깊이 배움
- 2.부장님께 칭찬받았음
-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 3.자격증 준비 시작
- 커리어 방향성을 잡음!

사회

- 1.전역동기들과 재회
- 서로 여전히 힘이 되는 사이
- 2.동네 아빠 친구 생김
- 아기를 통한 관계가 생기다니!
- 3.군 선후임 연락 유지
- 짧은 안부가 엄청난 힘이 된다

가족

- 1.아기의 폭풍 성장
- 첫 걸음, 첫 단어 기적 같아
- 2.매내와 전우애 커짐
- 팀으로 더욱 호흡이 맞아간다
- 3.부모님 건강
- 더 자주 찾아 봐야겠다

나

- 1.새로운 취미 생김
- 영상 만들게! 즐겁다
- 2.금융, 투자 공부 시작
- 가정경제 책임이 더 커짐
- 3.불안감이 줄었음
- 일상에 안정감이 더 커졌다

2단계. 2026년 하고 싶은 것 쏟아내기

올해를 잘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2026년으로 돌려볼까요? A4용지를 뒤로 뒤집어, 각 영역에 ‘2026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을 걸러내지 않는 거예요. 될까?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그저 마음을 따라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을 모두 꺼내보세요.

- 꾸준히 하고 싶은 것: 매일 블로그 짧은 글 쓰기, 자기 전 스트레칭
- 프로젝트 성격: 여행 다녀와서 책 쓰기, 독서모임 열어보기, 자격증 따기
- 일회성 이벤트: 혼자 해외 트레킹 여행 다녀오기, 해외 마라톤 나가기
- 마음가짐: 다정하게 말하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 단계는 ‘이뤄야 할 일’을 적는 시간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꿈을 맞추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먼저 적어보고 이후에 방법을 찾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쏟아내다 보면, 2026년의 윤곽이 어느정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3단계. 우선순위를 높은 것을 골라 오늘의 시간에 넣기

이제 진짜로 실천할 것을 고를 차례예요. 목표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먼저 각 영역에서 1개씩만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 선택한 목표를 당신의 하루에 직접 넣어보는 단계가 필요해요. 무엇을 언제 할지 명확히 정하세요. 그와 동시에, 그 시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덜어내 봅시다. 운동을 더하고 싶다면 저녁에 넷플릭스 한 편을 보며 하루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비워야 할 수 있죠. 자격증 공부를 더하고 싶다면, 독서하는 시간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한 목표를 보이는 곳에 두세요. 메모장에 적어 책상 앞, 현관, 세면대 옆, 냉장고 등 매일 지나다니는 동선에 붙이는 거죠. ‘내가 올해 잘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행동이 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전체 마무리 카페에서 한두 시간만 온전히 나에게 쓰면, 올해의 회고부터 내년의 방향까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작은 시간으로 한 해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2026년을 응원합니다. ☺

글쓴이 소개 정지하

[시간을 선택하는 기술, 불력식스], [계획이 문제였습니다] 저자, 유튜브 [시간관리는 룩말이와 함께] 운영, EBS 귀하신 몸 <도파민 중독> 편 시간관리 전문가 패널 출연, 배민아카데미, 삼성화재 기업/기관 다수 강의 등

13도 창의군 결성

글 편집실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13도 창의군)

3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②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③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하였다.
- ④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에 따라 해산하였다.

전국의 의병 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가) 을/를 결성했다더군.
총대장에는 이인영이 추대되었다고 하네.

맞네. 해산된 군인들도 가담
했다고 하니 의병의 전력이
한층 강해질 것 같네.



[정답] ①번

문제의 이 부대는 13도 창의군입니다. 13도 창의군은 1907년 전국적으로 해산된 의병 세력이 연합하여 조직한 항일 의병 연합부대입니다. 총대장에는 이인영, 군사장에는 허위가 선임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일본군에 맞서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각국 영사관에 요청할 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했지만, 작전 도중 일제의 공격과 내부 혼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군대 해산이 불러온 전국 봉기

1907년 7월 일본은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이에 항거하여 자결하자 지방 진위대 병력도 연이어 봉기하며 무장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무렵 각지의 군인과 유생, 농민이 함께한 항쟁을 정미의병이라 부릅니다. 그 중심에서 각 도의 의병장들은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야 국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연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전국 13개 도의 의병이 하나로 뭉친 13도 창의군이 탄생하였습니다.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선생(왼쪽)과 군사장 허위 선생



〈조선의 비극〉 저자인 영국의 데일리 메일 기자 매켄지가
1907년 양평에서 촬영한 의병들의 모습



13도 창의군 서울 진격전 〈출처 | 우리 역사넷〉

전국 의병의 통합, 13도 창의군 결성

1907년 9월 문경의 유생 이인영 선생이 총대장으로 추대되고, 허위 선생이 군사장을 맡으며 창의군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인영 선생은 각국 영사관에 서한을 보내 “의병은 애국단체로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였고,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여 국민의 단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의 호소에 응답한 의병들이 양주로 집결하였으며, 충청도의 이강년, 강원도의 민궁호, 전라도의 문태수, 경상도의 신돌석, 황해도의 권중희, 평안도의 방인관, 함경도의 정봉준 등 각 도의 대표 의병장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6일 의병들은 약 1만 명의 병력을 24개 진으로 편성한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를 구성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서울 진공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동대문 30리까지 진격한 항전

허위 선생이 이끄는 선발대 300명은 1907년 12월 중순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현 구리·양주 일대)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기관총 공격으로 후속 부대가 도착하지 못해 격전 끝에 부득이 후퇴하였습니다. 비록 작전은 실패로 끝났으나, 이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전개된 항일 의병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무장 항쟁이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의 토벌이 강화되었고, 허위 선생께서는 1908년 6월 11일 양평 유동 전투에서 체포되어 순국하셨으며, 이인영 선생께서는 1909년 6월 충북 황간군 금계동에서 체포되어 순국하셨습니다.

13도 창의군의 흔적과 역사적 가치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은 실패로 끝났지만, 정미의병의 전국적 연합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1907년부터 1909년 사이, 전국적으로 3천 회가 넘는 의병 전투가 이어졌고, 일본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작전’(1909년 9~10월)을 전개하였습니다.

생존한 의병 세력은 연해주와 간도로 이동하여 대한독립군, 의민단, 서로군정서 등으로 재편되었고, 이인영·허위 두 선생을 비롯한 창의군 의병장들은 모두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계십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 남면에는 현충시설 제15호 ‘13도창의군 탑’이 세워져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독립기념관의 공식 사료를 통해 그 활동 전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도 창의군의 항전은 대한제국의 멸망기, 전국이 하나 되어 국권을 지키려 한 마지막 무장 항쟁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65

카메라 뒤의 세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PD & 메이크업 아티스트 &
영화 프로듀서 & 카메라 감독

글 편집실



사진 출처: 지니 TV <금쪽같은 내스타>



사진 출처: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사진 출처: KBS <프로듀사>

드라마는 때로 카메라 앞보다 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든다. <프로듀사>, <금쪽같은 내 스타>, <은중과 상연>은 방송과 영화의 무대 뒤를 비추며, 그 안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PD, 배우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화를 설계하는 프로듀서, 그리고 장면의 감정을 빛는 카메라 감독.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사람들이자, 작품의 완성도를 만드는 숨은 주인공들이다.



KBS <프로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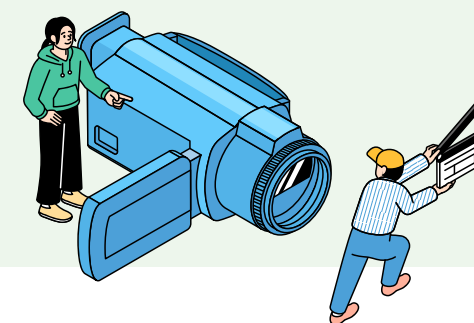
지니 TV <금쪽같은 내스타>

방송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사람, PD

<프로듀사>는 방송국 예능국의 분주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담아 냈다. 탁예진(공효진)과 라준모(차태현), 신입 PD 백승찬(김수현)은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해결한다.

현실에서도 PD는 방송의 방향을 정하고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이다. 기획안을 세우고 예산을 관리하며, 연출·작가·촬영팀을 이끌어 방송을 완성한다. 방송 장르에 따라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예능 PD는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잡고 촬영과 편집을 총괄한다. 드라마 PD는 대본과 캐스팅, 연출과 후반 작업까지 책임진다. 교양 PD는 취재와 구성, 인터뷰를 통해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한 방향으로 모아 '화면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PD가 되려면 영상콘텐츠·미디어 관련 학과나 방송제작 전공을 통해 기획·연출 과정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영방송·중편의 공채나 외주제작사 입사 후 조연출(AD)로 시작해 경험을 쌓는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OTT 채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포트폴리오를 쌓는 경우도 많다. 창의성과 조직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PD의 핵심 역량이다.



배우의 얼굴을 완성하는 직업, 메이크업 아티스트

눈 떠보니 25년이 흘러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가 하루 아침에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면서 벌어지는, 눈물·웃음 다 쏟아지는 세월 순삭 로맨틱 코미디 <금쪽같은 내 스타>. 이 특별한 설정 속에서 '민태숙'(차청화)은 혼란과 웃음이 뒤섞인 세월 속에서도 톱스타 임세라의 이미지를 책임져온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등장한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배우를 마주하는 사람이자, 캐릭터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민태숙의 손끝에서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고, 배우의 감정선이 메이크업으로 표현된다.

드라마는 화려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섬세한 기술과 감각, 그리고 강한 체력을 함께 요구하는 직업이다. 촬영 현장은 조명과 날씨, 시간에 따라 메이크업이 달라져야 한다. 피부 상태를 고려하고, 콘셉트에 맞게 색감과 질감을 조절하며, 조명 아래에서 톤이 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정한다. 특히 영화·드라마 현장은 분장팀과 협업하며, 인물의 시대적 배경과 캐릭터 성격까지 반영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이 필요하다. 대학·전문학교의 미용학과에서 피부·색채학·미용 위생 등을 배우고, 자격 취득 후 샵·프로덕션·방송국에서 어시스턴트로 경력을 쌓는다.

조명과 카메라 환경에 따른 색 표현법, 트렌드를 읽는 감각,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모두 중요하다. 스타보다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 퇴장하는 직업, 빛을 다루는 또 다른 예술가가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은중과 상연〉기분표



영화의 설계자, 프로듀서

매 순간 서로를 가장 좋아하고 동경하며, 또 질투하고 미워하며 일생에 걸쳐 얹히고설킨 두 친구, 은중과 상연의 모든 시간을 마 주하는 이야기. 〈은중과 상연〉은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두되, 그들이 살아가는 영화 제작의 현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그 속에서 은중(김고은)과 상연(박지현)은 감독과 스태프, 투자자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영화 프로듀서로 등장한다. 드라마는 은중과 상연이 이야기의 감정선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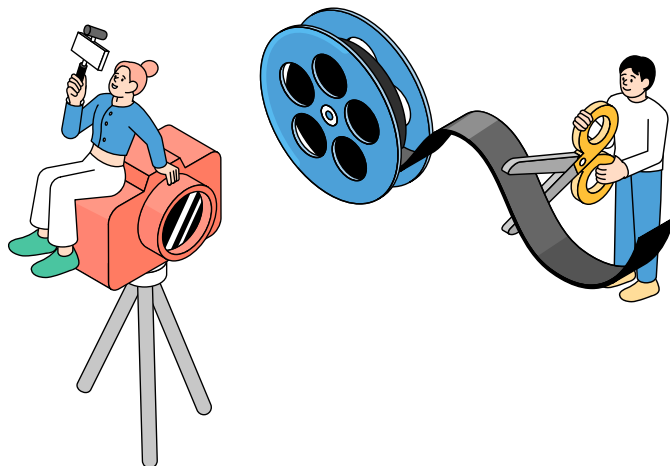
현실의 영화 프로듀서 역시 예술과 산업의 경계에 선 사람이다. 프로듀서는 한 작품의 시작과 끝을 모두 관리한다. 시나리오 개발, 투자 유치, 제작비 산정, 스태프 구성, 일정 관리, 마케팅과 배급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은 프로듀서를 “창작과 산업을 잇는 기획개발자이자 현장 운전자”로 정의한다.

OTT와 독립영화가 늘면서 제작형태가 다양해졌고, 역할도 세분화되었다.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영상·경영 관련 전공에서 기획·회계·법률 과목을 함께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 졸업 후에는 영화 제작사·투자배급사 인턴으로 시작하거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는다. 예산과 사람, 시간을 관리하는 조직력과 협상력이 필수이며, 감독과 배우, 투자자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장면의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 카메라감독

〈은중과 상연〉은 장면마다 빛의 온도와 프레임 구도가 감정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카메라 감독이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지휘하는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감독의 시선을 시각화하는 예술가다. 카메라 감독은 렌즈 선택과 구도, 조명, 색감을 결정하며 촬영 현장의 기술팀을 총괄한다. 한 장면의 조도와 그림자를 설계하고, 인물의 감정선에 따라 카메라 무빙을 조정한다.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K.S.C)는 이 직업을 ‘기술과 미학의 접점에 선 영상 연출자’로 정의한다.

이 일을 시작하려면 영상·영화 관련 학과에서 촬영·조명·색보정 기초를 배우고, 현장에서는 카메라 어시스턴트(AC)로 경험을 쌓는 것이 첫걸음이다. 조명팀·그립팀과 협업하며 다양한 촬영 환경을 익히고, 포트폴리오 영상을 제작해 필모그래피를 구축한다.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체력과 순간의 판단력, 그리고 ‘빛으로 감정을 설계하는 감각’이 핵심 자질이다. 65



직업별 진입 루트

직업	주요 전공	첫 진입 단계	핵심 역량
PD	영상·미디어학	조연출(AD)	기획력·조직관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학·색채학	어시스턴트	감각·소통
영화 프로듀서	영화·경영	제작사 인턴	기획력·협상
카메라 감독	영화·영상	촬영 어시	기술·미학 감각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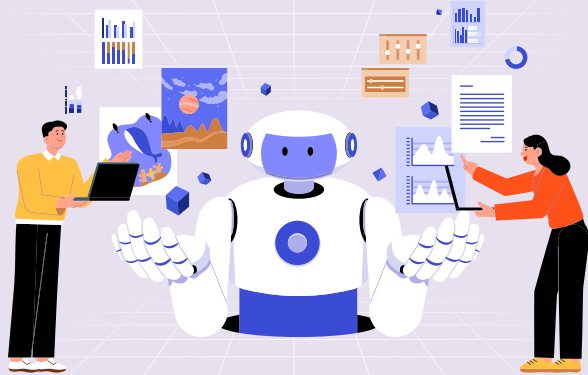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2021)〉



※직업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방송연출가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생성형 AI 이후의 시대 2026년을 읽다



글 이임복

챗GPT가 세상에 공개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으로 제대로 소통이 가능한 AI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수많은 활용법들이 나왔으며, AI와 관련된 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재미로 써보다가 일과 생활에 조금씩 활용해 보던 사람들은 이제 GPT가 없이 일하는 건 생각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GPT MOMENT, GPT의 순간이 왔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북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

생성형 AI 이후의 시대가 온다

이제 챗GPT가 만든 생성형 AI의 시대는 4년 차로 접어든다. 지금도 뛰어난 생성형 AI들이 더 고도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고도로 발달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들이 일과 생활에 들어오게 된다. 집에서는 로봇 청소기 대신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집사의 역할을 하고, 공장에서는 힘든 일을 대신해 준다. 어느 곳에서도 AI는 녹아들어 있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들은 나만의 AI 비서와 함께 하게 된다.

물론 상상하는 미래가 유토피아만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디스토피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매트릭스> 등의 영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어떤 세상이 오든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오게 될 2026년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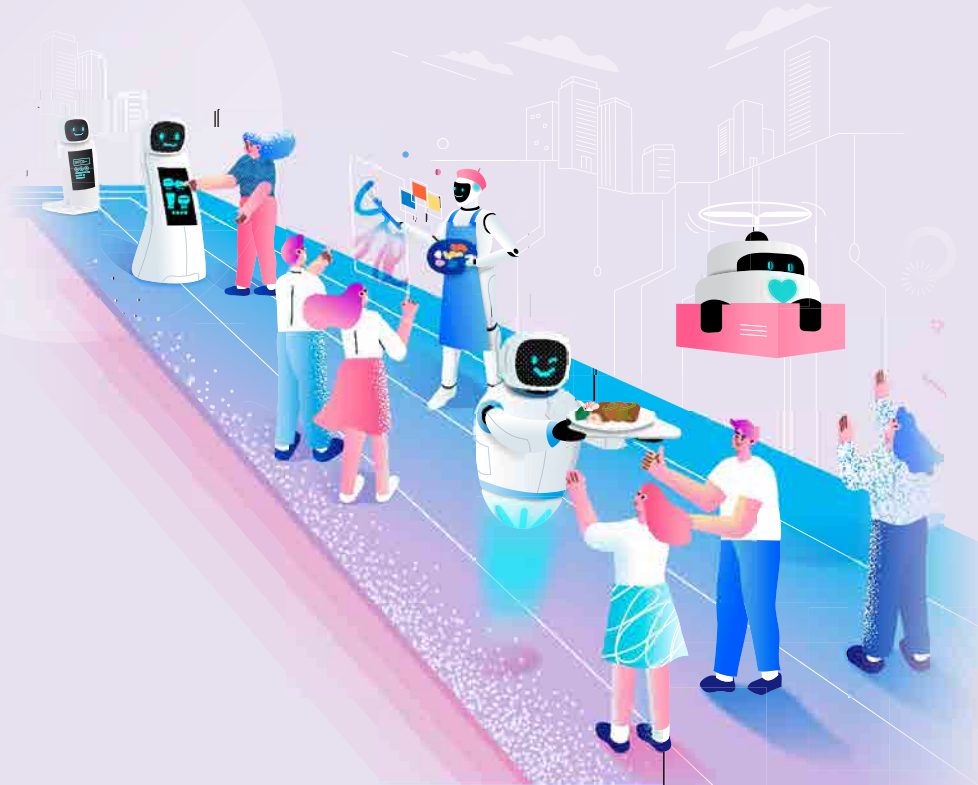
2026년 어떤 미래가 오게 될까

AI 검색 전쟁의 시대

1998년 구글, 1999년 네이버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검색 회사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검색 결과를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검색 결과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검색 결과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에도 눈 앞의 식당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네이버에서 먼저 리뷰를 검색한 후 선택하게 됐다.

2022년 12월, Perplexity(퍼플렉시티)가 서비스를 공개했다. 챗GPT 등장 후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었는데, 챗GPT와 다르게 대화가 아닌 '검색'을 기반으로 한 AI 답변이 핵심이었다. 2024년 12월 챗GPT 역시 'ChatGPT Search'라는 이름의 웹 검색 기반의 대답을 도입했고, 2025년 구글이 AI모드를 도입하며 AI 검색 전쟁이 시작됐다.

2026년은 별도의 AI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도 없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보 검색 시 AI가 요약정리해 대답하는 기능이 정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다.(지금은 베타 버전이다) 반면 GPT나 퍼플렉시티와 같은 회사들은 자체 웹 브라우저(아틀라스, 코멧)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

AI 에이전트란 미리 정해진 과업을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성하는 AI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일 부산에 내려가는 KTX를 예매해야 한다면 '내일 오후 5시 이후 부산 내려가는 KTX 예매해 줘. 서울역 출발' 이렇게만 에이전트에게 이야기하면 별도로 개입할 필요 없이 결제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과정 전체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역시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GPT나 퍼플렉시티의 경우 자신들의 브라우저에서 해당 명령을 내리면 마치 인간처럼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스크롤하고 클릭한 후 임무를 수행한다.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까지 한번에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26년 구글의 제미니가 '크롬 브라우저'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한계는 곧 무너지게 된다.

검색, 쇼핑, 문서 작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 AI 에이전트들이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인간을 대신해 일을 하는 시대. 그 시작이 2026년이다.

AI로 만든 콘텐츠의 세상이 된다.

이미 AI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며, 음악을 작곡한다. 2025년 말까지 오픈 AI의 소라2, 구글의 나노바나나/VEO 3, SUNO의 음악 작곡 서비스 등이 거의 인간과 가까운 퀄리티의 콘텐츠 생성능력을 보여주며 우리를 놀라게 했다. 2026년은 더 많아지게 될 예정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간단한 숏츠나 팸플릿의 대부분은 AI가 생성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면 할수록 기업들은 시간 절감과 비용 절감이란 효율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2025년 말까지 AI가 해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반신반의'했다면 2026년 이후에는 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일을 의지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더 커지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

첫째, 윤리기준이 필요하다 — AI로 만든 콘텐츠는 무분별할 정도로 양산되게 된다. 빌 게이츠 등의 유명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수준은 지금은 재미이지만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진다. '이걸 써도 되는 건가?'라는 기준을 개인들에게 무조건 맡기고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붉은 신호등이면 건너서는 안되는 기준점이 있듯, 업무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AI 사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다 — 모든 걸 다 해주는 AI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경험'과 '표현력'이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아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정확한 표현력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근간이 되는건 '경험'이다. AI 시대, 대체되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 'AI 활용법'과 같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읽기', '쓰기', '말하기', '생각하기'라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나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개인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더 신경쓰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문제다 —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위협이다. 비용 절감의 다른 말은 일자리의 상실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일자리 재창출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 2026년을 넘겨서는 안된다. **45**

낙조의 수평선에서 평화를 기억하다

전남 목포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한 해의 끝자락, 서해의 노을은 천천히 바다로 스며든다.
낮의 시간들이 저물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그 순간
목포의 밤은 빛으로 말을 건넨다.

붉게 번지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고,
다가올 새해의 숨결을 느낀다.
평화를 품은 섬 삼학도에서 시작해 유달산과 목포대교,
그리고 바다 위 스카이워크에 이르기까지,
목포의 일몰과 야경은 한 해의 마지막 여정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길목

유달산

목포 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유달산은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지만 목포의 상징이라 불린다. ‘유달(有達)’이라는 이름은 ‘머무르지 않고 통한다’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길목이었던 목포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산길을 따라 오르면 노적봉, 달성사, 유선각, 전망대 등 역사적 명소가 곳곳에 자리해 있어 한 걸음마다 이야기가 이어진다.

정상에서는 다도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멀리 흑산도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특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태양이 바다 수평선과 맞닿는 순간, 유달산은 황금빛 거대한 캔버스가 된다. 저녁이면 해상케이블카 불빛이 켜지고, 도시의 야경이 산 아래로 번져 내려간다. 목포대교와 스카이워크, 항구의 조명들이 이어지며 하나의 빛의 강을 이루는 장면은 이 계절, 유달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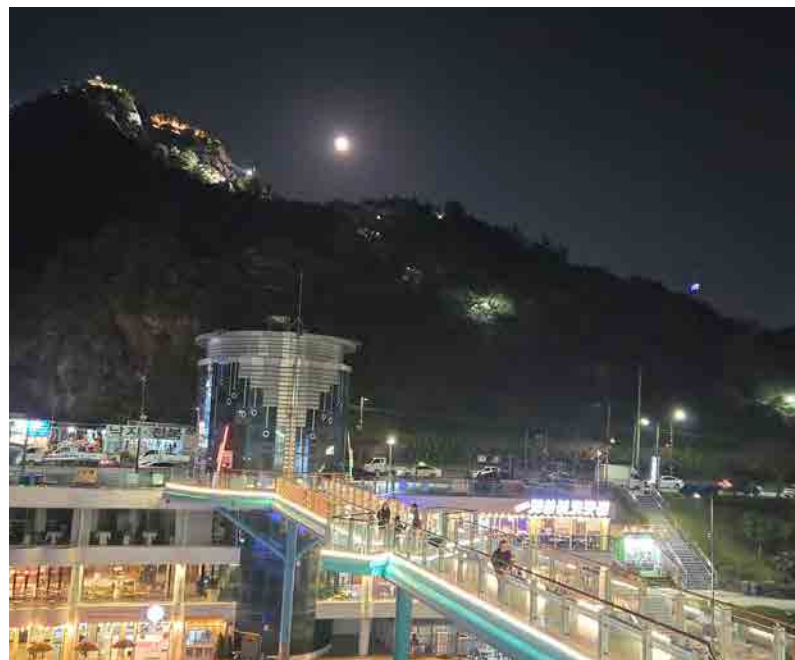
공원이 된 섬, 평화의 빛

삼학도공원&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세 마리 학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삼학도는 본래 세 개의 작은 섬이었다. 1968년부터 5년간 이어진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며 지금의 삼학도공원이 되었고,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다리, 쉼터 위로 노을이 번지며 ‘물 위의 공원’이라는 고유한 풍경을 만든다. 섬 한켠에는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을 기리는 공원이 있다. ‘목포의 눈물’의 주인공인 그녀의 노래비와 수목장, 김시스터즈로 활동한 딸들의 이야기는 목포 음악사의 중요한 흔적이다.

삼학도의 중심에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자리한다. 유리 돔과 금속 패널로 이루어진 건물은 ‘평화를 향한 빛의 파장’을 형상화했으며, 내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 노벨평화상 수상 과정이 전시돼 있다. 특히 전시 중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메달과 증서가 최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의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인권 신장, 남북 평화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당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해질 무렵 수로 위로 붉은 하늘이 비치면 기념관은 하나의 ‘노을 갤러리’가 된다. 평화의 메시지와 목포의 역사, 그리고 섬이 품은 전설이 이곳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바다 위를 걷는 낙조와 야경

목포대교 & 목포스카이워크

목포의 밤을 가장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단연 목포대교와 스카이워크다. 목포대교는 북향과 고하도를 잇는 4.13km 길이의 해상대교로, 2012년 개통 이후 서남해안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질 무렵이면 다리 전체가 붉은 노을을 품고, 조명이 점차 켜지면 수면 아래로 색색의 불빛이 흩어진다. 인근 유달산 입구의 ‘목포스카이워크’는 길이 120m의 유리전망대다. 바닥의 3분의 2가 투명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을 선사한다. 낮에는 푸른 파도, 저녁엔 낙조, 밤에는 불빛이 각각의 풍경을 만든다.

12월의 찬 공기 속, 손끝이 시릴 만큼 선명한 바다 위에 서면 겨울 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불빛이 한데 어우러진다. 바다 위의 다리와 스카이워크는 목포가 품은 ‘빛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

Tip. 여정의 정보

삼학도공원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55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남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8(삼학도공원 내)
09:00~18:00(월요일 휴관)

유달산공원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산42-2

목포스카이워크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59
동계 09:00~20:00(하계 09:00~21:00)

리;스펙 제대군인 20년의 여정,

존경의 기록 마침표

글 박선경

2005 - 2025 제대군인과 함께 걸어온 시간

2005년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로 한 권의 소식지가 세상에 나왔다.
이름은 <제대군인광장>.
그 작은 잡지는 20년 동안
이름과 형식, 내용이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다시 웃는 제대군인>, 그리고
<리;스펙 제대군인>으로 이어진 그 기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두 번째 인생을 함께 걸어온 역사다.

2025년 12월, 마지막 호를 맞은 지금,
그 20년의 여정을 다시 펼쳐본다.

리;스펙 제대군인이 걸어온 길

시기	제호	핵심 키워드	대표 통권
2005~2007	제대군인광장	제대군인 지원 정보의 출발	창간호(2005. 5.)
2007~2021	다시 웃는 제대군인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정책 확장기	100호(2014. 6.)
2022~2025	리;스펙 제대군인	자부심·공감· 플랫폼 다변화	200호(2022. 10.)

2005~2007

제대군인광장, 첫 목소리를 내다

2005년 5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역 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격월간 소식지 <제대군인광장>을 창간했다. 창간호 표지에는 황금빛 알 세 개가 놓여 있었다. 문구는 없었지만, 그 이미지는 ‘잠재된 가능성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초기 표지는 알·씨앗·나무·길 등 자연·사물 중심의 상징 이미지가 주를 이뤘다. 제대군인지원제도가 자리 잡아가던 시기, 소식지는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취업·교육·창업·행정 정보를 체계화해 제공하며 ‘실질적 안내서’ 역할을 했다. 전역 직후의 막막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답하는 길잡이였고, 국가가 전역 이후에도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시각화한 첫 기록이었다.



2007~2021

다시 웃는 제대군인, 사람과 정책을 잇다

2007년 4월 <제대군인광장>은 새 제호 <다시 웃는 제대군인>으로 개편되며 격월간에서 월간 발행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잡지의 방향이 ‘정책 중심의 정보지’에서 ‘사람 중심의 이야기’로 옮겨간 전환점이었다.

2007~2013년 표지는 하늘, 새싹, 나무, 손, 문, 과일 등 상징 이미지가 중심이었다. 제도와 정보 고도화에 맞춰 전국 센터의 활동이 꾸준히 기록되었고, 지원체계의 기반이 다져졌다.

2014년에는 시각·내용이 함께 전환됐다. 1월호(Vol.95)부터 인물이 표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3월호(Vol.97)는 단체 초상으로 ‘함께 웃는 사회 복귀’를 시각화했다. 6월호(통권 100호)는 과월호 표지 콜라주로 100을 형상화해 변화를 기념했다. 같은 시기 지면에는 제대군인 주간, 권역별 센터 뉴스, 고용우수기업 인터뷰, 직종 탐방, 교육 일정 등 전국 단위 활동이 체계적으로 실렸다. 이후 잡지는 제대군인주간, 창업 사례, 직무 전문교육, 제도 개선을 다루며 정책과 사람을 잇는 전문 매거진으로 정착했다.



2022~2025

리:스펙 제대군인, 공감과 플랫폼의 시대

2022년 1월 잡지는 세 번째 이름을 달았다. <리:스펙 제대군인>으로, ‘Respect(존경)’과 ‘Restart(재시작)’을 결합한 제호다. 그 이름처럼, 제대군인에게 다시 존중을, 사회로의 재출발을 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동시에 잡지는 종이 매체를 넘어 웹진과 SNS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정보의 형식보다 ‘공감의 언어’를 중시한 변화였다.

같은 해 10월 발행된 통권 200호는 그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표지 주제는 ‘자부심(I am a Soldier, That I am Me)’. 군인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 메시지였다. 200호 특집에서는 17년간의 표지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며 잡지의 역사를 ‘한 권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또한 ‘오늘도 발로 뛰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0개 센터의 교육·상담·기업협력·창업지원 서비스를 한 면에 담았다. 이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걷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기획이었다. 지면 구성도 새롭게 정리됐다. ‘커리어맵’, ‘스페셜리스트’, ‘미디어로그’, ‘뜻있는 여정’, ‘지식산책’ 등 정책·직업·문화·역사·여행을 아우르는 구조가 완성됐다. 그 결과, <리:스펙 제대군인>은 단순한 정책 매거진을 넘어 제대군인과 국민을 연결하는 보훈 전문 공감지로 도약했다.



그리고

존경으로 남은 이름, 리:스펙 제대군인

2005년 첫 소식지로 시작한 잡지는 20년의 세월 동안 이름을 세 번 바꾸며 시대와 함께 성장했다. 그 시간 동안 잡지는 제대군인과 함께 웃고, 함께 걸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20년 동안 제대군인의 일자리, 교육, 창업, 복지, 그리고 삶을 기록해 왔다. 이 잡지는 정책 홍보지를 넘어,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제대군인을 잇는 소통의 창이었다.

전라도의 청년 사업가, 부산의 군사학과 교수, 경남의 군특성화교 교사, 강원도의 귀촌 창업가, 서울의 국어학원 강사 등 각 지역의 현장은 제대군인지원정책이 실제 삶 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 곁에는 언제나 <리:스펙 제대군인>이 있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며 “전역 후의 삶에도 존경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한 호 한 호에 담았다.

이제 잡지는 스무 해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용기, 한 세대의 헌신과 자부심이 이 기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기 때문이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끝이 아니라 ‘이름’이다. 어제의 기록은 오늘의 자부심이 되고, 오늘의 존경은 내일의 희망이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제대군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잡지를 구독해 온 모든 독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잡지는 달하지만, 존경은 계속된다.

그 이름, <리:스펙 제대군인>.

그것은 여전히 제대군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㉞

LG전자 BEST SHOP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도약을
LG전자 베스트샵이 응원합니다.

국가보훈부와 함께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특별혜택

지금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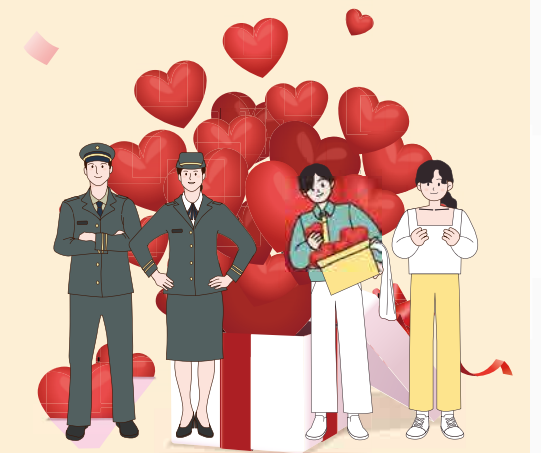
중병 | 제대군인증 or 보훈증

혜택 | LG전자 가전혜택

문의 | 전국 LG 전자 BEST SHOP 직영매장

기간 | 2025년 12월 ~ 별도 공지 시까지

당신의 내일을 더 특별하게
LG전자 베스트샵이 함께합니다!



Life's Good.

한 해를 닫고, 내일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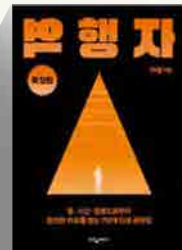
연말연시 읽으면 좋은 책 3선



트렌드 코리아 2026

김난도 등 | 미래의창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를 맞고 있다. AI, 전쟁,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는 K뷰티·K콘텐츠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6년을 향한 새로운 향해 지도를 제시한다.



역행자

자청 | 웅진지식하우스

타고난 본성과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법을 제시한 자기계발서. 저자 자청이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정립한 '역행자 7단계' 모델로 경제적·심리적 자유를 설명한다. 확장판에서는 무자본 창업 공식과 실제 성공 사례를 추가해 실천 중심의 라이프해킹 지침서로 완성됐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 어크로스

철학자 김영민은 일상 속에서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한다. 그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희망이나 절망이 아닌 담담한 태도로 삶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죽음을 사유함으로써 오히려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가게 하는 통찰을 전한다.

한 달에 한 가지, 생활 속 토양 보호하기

12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토양의 날(World Soil Day)'입니다.

토양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생존 기반으로, 지구 생태계의 4분의 1 이상이 토양 속에서 살아갑니다. 토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의 서식지와 식량 생산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토양의 약 33%가 침식·오염·산성화 등으로 이미 황폐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토양 1cm가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데에는 최대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토양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며, 플라스틱과 유해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 세대의 건강한 흙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11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박형준(세종 세종) 이두환(강원 홍천) 이송수(충남 천안)
하승환(강원 동해) 홍기준(경기 성남)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11월호 정답: ③ 광주학생독립운동

2025년 12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이준규 대한민국 경찰 경사



미상~1952. 12. 15.

대한민국 경찰의 숭고한 헌신을 보여준
강릉 동해안지구 전투의 영웅

휴전회담이 진행 중이던 1952년 후반,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들은 고지전과 교란작전을 강화했다. 북한군 제526군 산하 정치연락대원 28명은 강원도 산간지대인 석병산 일대에서 활동하며 약탈과 선전활동을 자행했다. 이에 강원경찰국 전투사령부는 12월 7일 대대적인 북한군 토벌 작전을 전개하여 9일 동안 다수의 적 사살, 무기, 비밀문서 등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이준규 경사는 용맹하게 적진으로 돌격하던 중 적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준규 경사의 발자취

1952년 12월 강릉 동해안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토벌작전 중 전사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